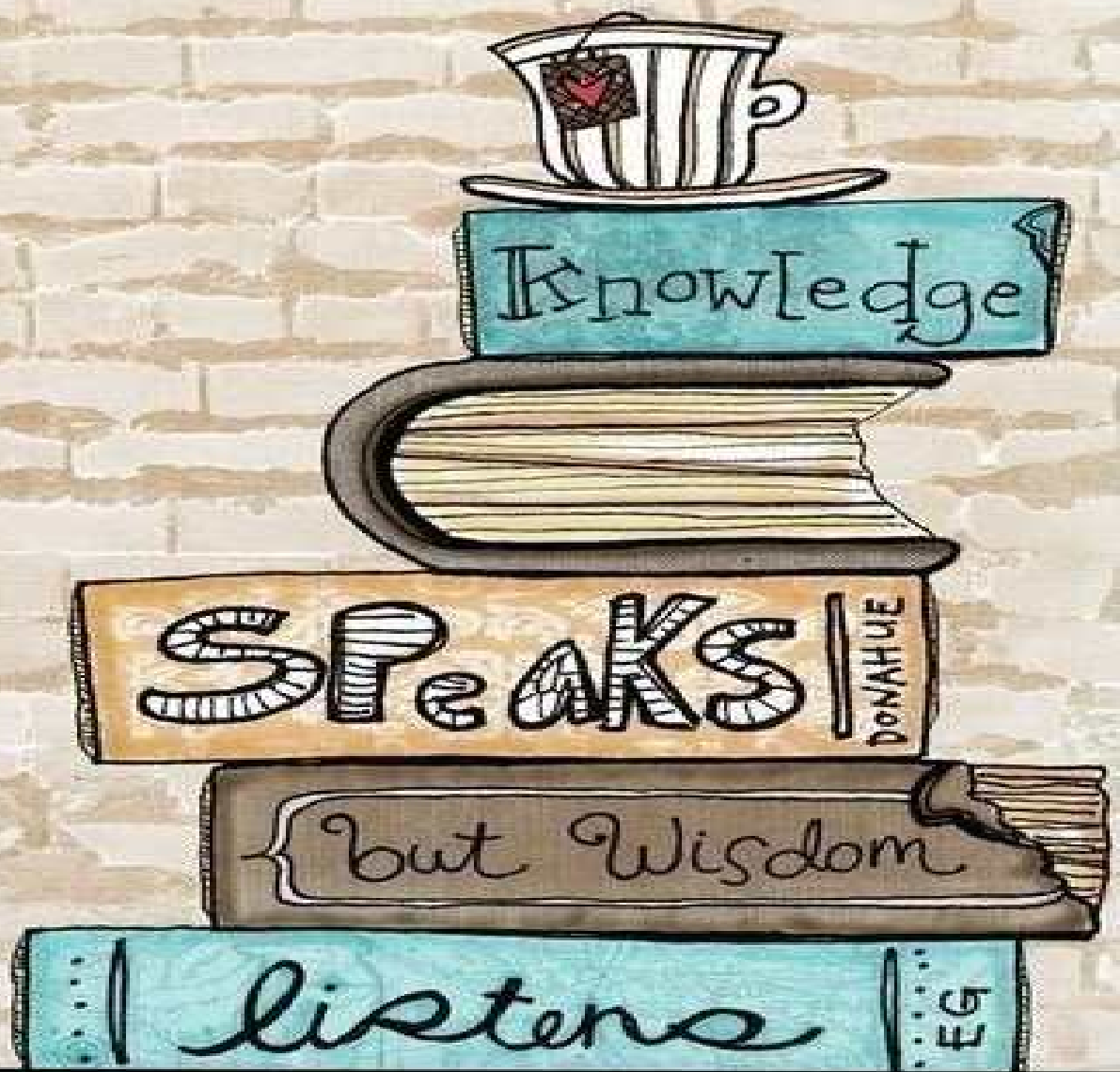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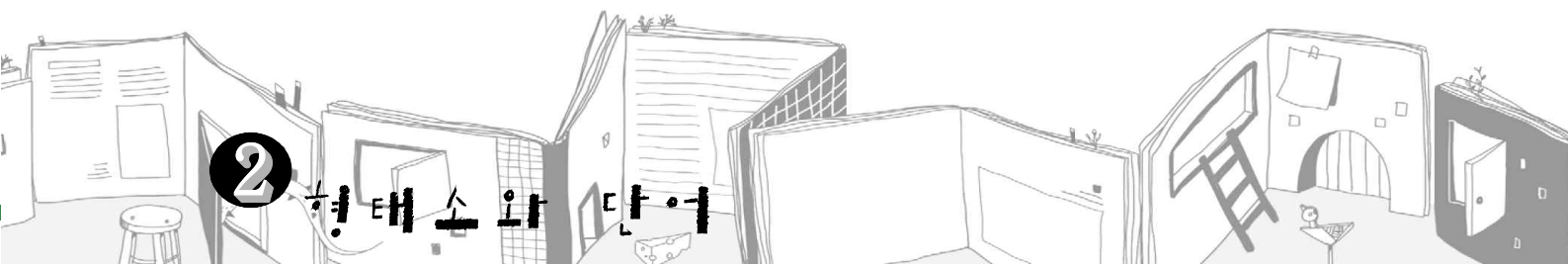


② 형태소와 단어

나 인 사 형 의



NOTE



2

형태소와 단어

형태소와 단어

개념 1 형태소와 단어

🔊 **형태소** - 일정한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 여기서 의미는 어휘적 의미와 문법적 의미를 모두 포괄한다. 어휘적 의미는 실사의 의미이고, 문법적 의미는 조사나 어미와 같은 허사의 의미이다.

하 늘 이 맑 다			
하늘	이	맑-	-다
명사	조사	형용사 어간	종결 어미

①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

- 자립 형태소 : 혼자 쓰일 수 있는 형태소 (체언, 독립언)
- 의존 형태소 : 반드시 다른 말에 기대어 쓰이는 형태소
(조사, 용언의 어간과 어미, 접사)

② 의미에 따라

- 실질 형태소 : 구체적인 대상이나 구체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태소 (체언, 독립언, 용언의 어간)
- 형식 형태소 : 형식적인 의미만, 즉 문법적 의미만을 나타내는 형태소
(조사, 용언의 어미, 접사)

✓ 이형태(異形態)

개념 : 하나의 형태소이나(의미 동일) 다른 형태를 가진 형태소들을 이형태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표제어를 정하는 것은 음운론적으로 설명이 용이한 편을 따른다.)

(ㄱ) 음운론적 이형태 : 하나의 형태소가 다른 음운 환경에서 다른 형태를 갖고 있는 이형태를 뜻한다.

주격 조사 ‘이/가’

목적격 조사 ‘을/를’

특이한 음운론적 이형태로, 소위 방향 부사격 조사 ‘로/으로’ 와 ‘시,/으시’

→선행하는 음운이 모음이냐 자음이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으’를 매개모음으로 보는 입장도 있음)

(ㄴ) 형태론적 이형태 : 하나의 형태소가 다른 환경에서 다른 모습을 띠는 것이다. (음운론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것들)

과거시제를 나타내는 ‘였/었’ → ‘-었-’이 기본 형태이지만, 특별히 ‘하-’ 어간 뒤에서는 ‘-였-’으로 바뀌게 된다.

명령형 어미 ‘어라/너라’ → ‘-어라’가 기본 형태이지만, 특별히 ‘오-’에서만 ‘-너라’로 바뀌게 된다.

🔊 단어

자립할 수 있는 말이나, 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에 붙어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 그러므로 ‘하늘’ 과 같은 자립 형태소는 그대로 하나의 단어가 되고, 의존 형태소인 ‘맑-’ , ‘-다’ 는 ‘맑다’ 처럼 서로 어울려야 비로소 하나의 단어가 된다. (음운은 최소의 의미 변별 단위, 형태소는 최소의 의미 단위, 단어는 최소 자립 단위)

✓ 조사의 단어 포함 여부

(ㄱ) 인정 : 조사 자체는 자립성이 없어도 이들과 직접 결합되는 형식이 자립 형식이기 때문에 준자립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조사는 준자립 형식으로 어느 정도 분리성이 인정되므로 단어로 간주할 수 있다.

(ㄴ) 불인정 : 조사는 체언에 자립성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분리되는 것이지 조사 자체에 분리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조사는 어미의 경우처럼 문법적 관계를 표시할 뿐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지 못하므로 단어로 인정하기 어렵다.



형태소와 단어

출제 point

.....

형태소와 단어

개념 2 단어의 형성

1. 어근과 접사

- ① 어근 : 단어를 형성할 때,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
- ② 접사 : 단어를 형성할 때, 어근에 붙어 그 뜻을 제한하는 주변 부분('어근'과 '접사'는 의미의 중심 여부에 따른 분류이고, '어간'과 '어미'는 활용 여부에 따른 분류이다.)

치	솟	다
접사(접두사)	어근	줄철접사(어미)

- ③ 단일어 : 하나의 어근으로 된 단어 산, 맑다, 하늘

- ④ 복합어 : 둘 이상의 어근이나(합성어), 어근과 파생 접사로 이루어진 단어 (파생어)

○ 합성어 - 어근과 어근으로 구성된 단어

어깨+등 무, 앞+뒤, 착(은)+아버지, 뛰(어)+나(다)

↳ 구(句)와 구별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파생어

- 접두사 + 어근(파생 접사 + 어근)

뜻+사과 치+솟(다) 헛+꿈 새+파랑(다)

- 접미사에 의한 파생(어근 + 파생 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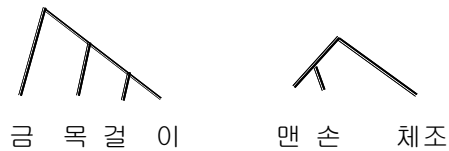
툰+질	먹+이	잡+히(다)	어른+스럽(다)
놀+이	빨리(빠르+이)	공부+하다	

↳ 접미사에 의한 파생은 품사를 바꿀 수 있음.

2. 직접 구성 요소 분석

형태소가 모여 단어를 이루거나 단어가 모여 구나 문장을 이룰 때와 같이, 구성 요소가 모여 하나의 구성을 이룰 때 그 구성 요소들이 묶이는 방법은 평면적이기보다 층위적이다. 이 때문에 어떤 구성의 구조를 바로 파악하려면, 이 층위를 밝혀서 그 묶임의 순서를 바로 알아야 한다. 이 때 사용되는 개념이 직접 구성 요소(또는 직접 성분, 줄여서 IC)이다. 직접 구성 요소란 어떤 구성을 일단 둘로 쪼개었을 때의 그 각각을 말한다.

IC분석은 모든 구성에 유용하므로 합성어, 구, 문장 등의 분석에 적절히 이용할 수 있다. 가령 '금목걸이'의 직접 구성 요소는 '금'과 '목걸이'인데 이것을 잘못 '금목'과 '걸이'로 분석한다면 사람의 목이 금으로 되었다는 뜻이 될 것이다. 또 '맨손체조'는 '맨손'과 '체조'로 분석되어야지 이것을 '맨'과 '손체조'라고 한다면 '맨-'이라는 접두사가 신체의 일부가 아닌 '체조'와도 결합하는 꼴이 되고 의미도 엉뚱해질 것이다. 이처럼 IC분석은 합성어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매우 유익하다.



출제 Point

.....



형태소와 단어

형태소와 단어

개념 3 파생어와 합성어

1. 파생어

접두사	•어근의 앞에 붙는 파생 접사 •뜻을 한정하는 의미적 기능을 함. •어근의 품사를 바꿀 수 없음
접미사	•어근의 뒤에 붙는 파생 접사 •뜻을 더하는 의미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문법적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① 접두사

군- : 군말, 군불, 군살, 군소리, 군손질, 군식구, 군침
 짓- : 짓구기다, 짓누르다, 짓밟다, 짓씹다, 짓이기다, 짓쪼다
 새-/시-, 셋-/짓- : 새빨강다/시뻘겋다, 새파랗다/시퍼렇다, 새까맣다/시꺼멓다,
 셋노랑다/짓누렇다

- ‘군-’, ‘짓-’, ‘새-/시-’, ‘셋-/짓-’은 특정한 뜻을 더하거나 강조하면서 새로운 말을 만들어 낸다.
- 접두사 중에는 명사와 동사에 다 붙을 수 있는 것들도 있다.
- ↳ 다음의 접두사 ‘헛-’은 명사나 동사의 앞에 붙어 ‘보람 없는, 보람 없이’의 뜻을 더한다.

헛- : 헛고생, 헛결음, 헛기침, 헛농사, 헛소리, / 헛늬다, 헛뜯다, 헛뜯다, 헛디디다, 헛먹다,
 헛보다

② 접미사

- 접미사에 의해 파생된 명사

-꾼 : 구경꾼, 나무꾼, 낚시꾼, 살림꾼, 일꾼, 지게꾼, 짐꾼, 춤꾼
 -(으)ㄴ : 가르침, 결음, 느낌, 도움, 모임, 믿음, 싸움, 울음, 죽음,
 게으름, 괴로움, 귀여움, 기쁨, 슬픔, 아픔, 외로움, 즐거움

- ‘-꾼’ : 명사에 붙어 ‘그 일을 잘 하는 사람, 어떤 일을 하려고 몰려드는 사람’등의 의미를 더하여 새로운 명사를 만든다.
- ‘-(으)ㄴ’ : 용언의 어근에 붙어 그것이 뜻하는 동작이나 상태를 가리키는 명사를 만들기 때문에 어근의 품사를 바꾸어 주는 접미사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2. 합성어 - 파생 접사 없이 어근과 어근이 직접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

- 고추잠자리, 밤낮, 새해, 빛나다
 - 보슬비, 알뜰살뜰, 돌보다, 뿔푸르다
 - 나뭇잎, 너도밤나무, 갈림길, 큰아버지, 날아가다
- ↳ '명사 + 사이시옷', '대명사+조사', 용언의 활용형 등을 포함하고 있는 복잡한 합성어

① 합성어와 구(句)의 구분

단 어	의 미	설 명
큰 집	큰아버지의 집	합성어로서,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큰 집'이라고 붙여서 적어야 하며, 이 때에는 '*큰 우리 집'처럼 중간에 다른 말이 끼어 들어갈 수가 없다.
큰 집	크기가 큰 집	일반적 의미의 구이기 때문에 '큰 집'이라고 띄어서 쓴다.

② 반복 합성어

- 합성 부사에는 같은 말이 반복되어 이루어진 반복 합성어가 많다.

구석구석, 하루하루, 깡충깡충, 어둑어둑, 풍당풍당, 파릇파릇
('구석구석, 하루하루' 같은 말들은 명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인다.)

③ 합성어의 유형

○ **통사적 합성어** - **통사적 합성어**는 통사론적 시각에서 볼 때 두 어근 또는 단어가 연결된 방식이 문장에서의 구나 어절의 구성 방식과 일치하는 것
(우리 말의 일반적 단어 배열과 같은 유형의 합성법)

- 명사+명사 : 돌+다리
- 관형어+명사 : 작은+형
- 주어+서술어 : 힘+들다



형태소와 단어

○ 비통사적 합성어 - 우리 말의 일반적 단어 배열에 어긋나는 합성법

- 우리말에서 어미는 생략이 어려우므로 어미가 생략되면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용언과 체언이 연결될 때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생략되는 현상
: 늦+더위 뒷+밥 접+칼
- 용언과 용언이 연결되는 데 있어서 연결어미가 생략되는 현상
: 여+닫다, 뛰+놀다
- 부사는 용언, 관형사나 다른 부사를 수식하는 것이 원칙인데 부사가 체언 앞에 오는 경우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 부슬+비 혈떡+고개
- 한자어에서 많이 나타나는 구성으로, 우리말 어순과 다른 방식을 보이는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 독+서 급+수 등+산

✓ ‘작은집’은 형용사의 관형사형 ‘작은’과 명사 ‘집’이 결합된 것으로 명사 앞에 관형사형이 놓이는 것은 우리말의 정상적인 단어 배열법이다. ‘들어가다’는 동사와 동사가 연결 어미를 매개로 하여 합친 합성어인데 이러한 단어의 배열법 또한 국어의 문장 구성에서 목격할 수 있다. ‘밤낮’은 부사의 기능을 띠고 있으나 이 말 또한 두 명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늦더위’는 ‘늦은 더위’가 되어야 할 것이나 형용사 어간 ‘늦-’이 관형사형 어미 없이 바로 명사 앞에 놓여 있다. 현대 국어에는 용언의 어간이 명사 앞에 직접 놓임으로써 문장을 구성하는 일은 없다. ‘늦잠’도 ‘늦은 잠’이 되지 않고 어간 ‘늦-’이 명사 앞에 직접 와 있다. ‘검붉다’는 정상적인 단어 배열법에 기대면 ‘검고 붉다’로 되어야 할 것이나 형용사의 어간이 어미의 매개 없이 직접 결합되고 있다. 이러한 비통사적 합성법은 현대 국어에서는 그렇게 생산적이지 아니다.

④ 합성어의 의미상 갈래

○ 병렬관계

: 두 단어나 어근이 본래의 의미를 가지고 대등한 자격으로 연결된 말
말+소 → 마=소 / 높+푸르다 → 높=푸르다 / 오+가다 → 오=가다

○ 유속관계

: 두 단어나 어근이 본래의 의미를 가지되, 서로 주종관계로 연결된 말
국 < 밥 / 소 < 나무 / 돌 < 다리 / 돌아 < 보다

○ 융합관계

: 두 단어나 어근의 뜻이 없어지고 하나의 새로운 뜻을 나타내는 말
밤+낮 → 항상, 늘 춘+추 → 나이, 연세 돌아+가다 → 죽다

출제 Point

.....



형태소와 단어

Step 1

1. EBSi <보기>의 ㉠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의미를 지니면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말의 단위가 형태소이다. 형태소는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실질 형태소와 문법적인 의미를 가진 형식 형태소로 분류할 수도 있다. 단일 형태소로만 이루어진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등과 단일 형태소로만 이루어진 동사와 형용사의 어간 등이 실질 형태소에 속하고 조사, 어미, 접사 등은 형식 형태소이다. 자립 형태소는 대체로 실질 형태소와 일치하고 의존 형태소는 대체로 형식 형태소와 일치한다. 다만 용언의 어간은 의존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에 속한다.

예문: ㉠첫눈이 내리자 사람들은 한낮에 산으로 갔다.

- ① 자립 형태소는 ‘첫눈’, ‘사람’, ‘낮’, ‘산’ 4개이다.
- ② 실질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는 ‘내리-’, ‘가-’이다.
- ③ 의존 형태소인 접사는 ‘-들’, ‘한-’ 2개로 단독으로 쓰일 수 없다.
- ④ 의존 형태소인 어미는 ‘-자’, ‘-았-’, ‘-다’ 3개로 단독으로 쓰일 수 없다.
- ⑤ 형식 형태소인 조사는 ‘이’, ‘은’, ‘에’, ‘으로’ 총 4개로 문법적인 의미를 지닌다.

2. 다음 설명에 따라 예문 ㉠과 ㉡의 형태소를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형태소라 한다. 형태소는 단독으로 쓰일 수 있는지에 따라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나눌 수 있는데, 체언, 수식언, 독립언으로 분류되는 형태소들은 자립 형태소이고, 용언의 어간과 어미, 조사, 접사로 분류되는 형태소는 의존 형태소이다. 형태소들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실질 형태소와 문법적인 의미를 가진 형식 형태소로 분류할 수도 있는데, 체언, 수식언, 독립언, 용언의 어간으로 분류되는 형태소들은 실질 형태소라 할 수 있고, 문법적 의미를 표시하는 어미나 조사는 형식 형태소라 할 수 있다.

[예문]

㉠ 산에는 밤꽃이 가득 피었다.

㉡ 너를 보러 우리는 서울에 왔다.

- ① ㉠은 총 10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 ② ㉠의 의존 형태소는 ‘에, 는, 이, 피-, -었-, -다’ 총 6개로 ㉡의 의존 형태소 개수보다 많다.
- ③ ㉡의 형식 형태소는 ‘를, -러, 는, 에, -았-, -다’ 6개이다.
- ④ ㉡의 자립 형태소는 ‘너, 우리, 서울’ 3개로 ㉠의 자립 형태소 개수보다 1개 적다.
- ⑤ ㉠과 ㉡의 실질 형태소 개수는 동일하다.

3. <보기 1>에 따라 <보기 2>의 문장에 있는 형태소를 분류하는 활동을 하였다. ㉠ ~ ㉣에 들어갈 말을 짝지은 것으로 적절한 것은?

형태소는 두 가지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립성이 있어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지 않아도 되는 형태소를 자립 형태소라고 하고 반드시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여야만 하는 형태소를 의존 형태소라고 한다.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실질 형태소라고 하고 문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문법 형태소라고 한다. 자립 형태소는 모두 실질 형태소이지만 의존 형태소에는 실질 형태소도 있고 문법 형태소도 있다.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
실질 형태소	㉠	㉡
문법 형태소	-	㉣

	㉠	㉡	㉣
①	그, 얼굴, 이내, 빛	밝, 띠	의, 이, 은, 을, 었, 다
②	얼굴, 이내, 빛	그, 의, 이, 밝, 을, 띠	은, 었, 다
③	얼굴, 빛	그, 이내	의, 이, 밝, 은, 을, 띠, 었, 다
④	그, 얼굴, 이내, 빛	의, 이, 밝, 을, 띠	은, 었, 다
⑤	얼굴, 이내, 빛	그, 밝, 띠	의, 이, 은, 을, 었, 다

4. EBS <보기>를 참고하여 단어를 분석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간은 용언의 활용 시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근은 파생어나 합성어에서 의미상 중심이 되는 부분을 말한다. 그런데 동일한 요소가 어간으로도 쓰이고 어근으로도 쓰인다. 예를 들어 ‘놀-’은 ‘놀다’의 어간이기도 하면서 파생어인 ‘놀리다’의 어근이기도 하다. 이때 ‘놀리다’의 어간은 ‘놀리-’이다. 또한 합성어인 ‘뛰놀다’의 어근은 ‘뛰-’, ‘놀-’이지만 어간은 ‘뛰놀-’이 된다.

- ① ‘깨우다’의 어근은 ‘깨-’이고 어간은 ‘깨우-’이다.
- ② ‘되찾다’의 어근은 ‘되-’이고 어간은 ‘되찾-’이다.
- ③ ‘붙잡다’의 어근은 ‘붙-’, ‘잡-’이고 어간은 ‘붙잡-’이다.
- ④ ‘먹-’은 ‘먹다’의 어간이기도 하면서 파생어인 ‘먹이다’의 어근이기도 하다.
- ⑤ ‘끓이다’의 어근은 ‘끓-’, 어간은 ‘끓이-’이고, ‘애끓다’의 어근은 ‘애’, ‘끓-’, 어간은 ‘애끓-’이다.



형태소와 단어

5.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학생들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생님: 학생들이 종종 혼동하는 개념인 ‘어간’과 ‘어근’에 대해 알아보시다. 어간이란 용언이 활용을 할 때 중심이 되는 부분으로 변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먹다’의 ‘먹-’, ‘먹히다’의 ‘먹히-’가 어간이지요. 활용할 때 어간에 붙어서 형태가 변하는 부분은 어미입니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 등은 어간 ‘먹-’에 ‘-고’, ‘-으니’, ‘-어서’ 등의 어미가 붙어서 활용한 것이지요..

어근이란 파생이나 합성 등 조어 과정에 참여하는 요소 중 의미상 중심이 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즉 ‘먹히다’의 경우 ‘먹-’이 어근이지요. 이때 어근에 붙어서 문법적인 기능을 나타내거나 부분적으로 의미를 더해 주기도 하는 요소를 접사라 합니다. ‘먹히다’의 ‘-히-’는 피동을 나타내는 접사이지요.

그럼 각자 단어들을 예로 들어 어간과 어근에 대해 설명해 봅시다.

- ① ‘웃다’의 어간과 ‘웃기다’의 어근은 같은 형태입니다.
- ② ‘뛰어놀다’는 의미상 중심이 되는 어근 두 개가 결합한 것입니다.
- ③ ‘남다르다’의 어간은 ‘남다르-’이고, 어근은 ‘남’, ‘다르-’입니다.
- ④ ‘먹보’, ‘울보’는 어근 ‘먹-’, ‘울-’에 접사 ‘-보’가 결합한 것입니다.
- ⑤ ‘동생에게 물건을 돌려 보냈다.’에서 ‘돌려’의 어간은 ‘돌-’이고, 어근은 ‘돌리-’입니다.

6. EBSi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0

-기 1 「어미」
 (‘이다’의 어간,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 그 말이 명사 구실을 하게 하는 어미.
 ¶ 그는 너무 빨리 달리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잡을 수 없다. / 나는 그가 잠들기를 바랐다.

-기 2 「접사」
 (일부 동사나 형용사 어간 뒤에 붙어)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 그녀는 달리기 시합에 출전했다. / 이 펜은 굵기 조절이 가능하다.

- ① ‘-기1’의 뒤에는 보조사가 올 수 있는 반면에 ‘-기2’는 뒤에 보조사가 올 수 없다.
- ② ‘-기1’은 선어말 어미를 활용해 시제를 드러낼 수 있는 용례가 가능하지만 ‘-기2’는 선어말 어미를 활용해 시제를 드러낼 수 있는 용례가 가능하지 않다.
- ③ ‘-기1’의 ‘달리기’는 주어 ‘그는’과 어울려 하나의 절을 이루는 반면에 ‘-기2’의 ‘달리기’는 주어 ‘그녀는’과 어울려 절을 이루지 않는다.
- ④ ‘-기1’은 용언의 활용형의 일부로 그 말의 품사를 바꾸지 않는 반면에 ‘-기2’는 접사로 원래 단어의 품사를 바꾼다.
- ⑤ ‘-기1’의 용례인 ‘달리기’는 사전의 표제어가 되지 못하는 반면에 ‘-기2’의 용례인 ‘달리기’는 사전의 표제어가 될 수 있다.

7. <보기>의 자료를 바탕으로 파생 접미사와 어미의 차이점을 추리할 때, <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파생 접미사와 어미는 홀로 쓰이지 못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도 존재한다.

<자료1>

높다 [형용사] 아래에서 위까지의 길이가 길다.

높이 [명사] 높은 정도

높이 [부사] 아래에서 위까지의 길이가 길게

<자료2>

ㄱ. 재작년에 심은 나무가 벌써 어른 키 높이 정도로 자랐다.

ㄴ. 어느덧 태양이 높이 솟아 있다.

ㄷ. 하늘은 높고 바다는 푸르다.

ㄹ. 서울에는 높은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다.

‘ㄱ’과 ‘ㄴ’의 파생 접미사 ‘-이’ 그리고 ‘ㄷ’과 ‘ㄹ’의 어미 ‘-고’를 대비하면 < ㉠ >는 차이점을 알 수 있다.

- ① 어미는 품사를 변화시킬 수 있으나 파생 접미사는 그렇지 않다.
- ② 파생 접미사는 의미가 일정하지만 어미는 의미가 일정하지 않다.
- ③ 어미와 결합된 말은 사전에 등재되지만 파생 접미사와 결합된 말은 그렇지 않다.
- ④ 파생 접미사는 어근과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지만 어미는 그 결합이 제약되어 있다.
- ⑤ 파생 접미사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 수 있는데 어미는 단지 활용형을 만들 수 있을 뿐이다.



형태소와 단어

8. EBSi <보기>의 ㉠~㉣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파생 접사는 어근의 앞에 붙는 접두사와 어근의 뒤에 붙는 접미사로 나눌 수 있다. 이때, 일반적으로 접두사는 원래 단어의 품사를 바꿀 수 없지만 접미사는 원래 단어의 품사를 바꾸기도 한다. 또한, 접미사가 결합하여 피동이나 사동의 의미를 갖는 단어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파도의 ㉠ <u>높이</u> 를 재다.	높다	방의 온도를 ㉣ <u>높이다</u> .
그는 ㉡ <u>높이</u> 뛰었다.		그의 사기를 ㉢ <u>드높이다</u> .
벽이 ㉤ <u>높다랗다</u> .		가을 하늘이 ㉥ <u>드높다</u> .

- ① 같은 형태의 ‘-이’가 결합했더라도 ㉠과 ㉡의 품사는 서로 다르구나.
- ② ㉠의 접미사는 원래 단어의 품사를 바꾸어 주지만 ㉣의 접미사는 그렇지 않구나.
- ③ ㉤의 ‘-다랗-’과 ㉥의 ‘드-’는 모두 원래 단어의 품사를 바꾸어 주지 않는구나.
- ④ ㉣에서는 어근에 결합하는 접두사와 접미사를 모두 확인할 수 있구나.
- ⑤ ㉢과 ㉥의 ‘-이-’는 사동의 의미를 더해 주는 접사이구나.

9. <보기>의 ㉦, ㉧에 해당하는 예를 바르게 제시한 것은?

단어를 두 조각으로 나눌 때 그 각각의 구성 요소를 직접 구성 성분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나무꾼’을 직접 구성 성분으로 분석하면, 어근 ‘나무’와 접사 ‘-꾼’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직접 구성 성분이 어근과 접사로 나뉘는 단어를 파생어라고 한다. 파생어 중에 접미사가 결합해 만들어지는 것은 ㉦ 품사가 달라지는 문법적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와 ㉧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 | | | |
|---|-----------|-----------|
| | ㉦ | ㉧ |
| ① | 덧개, 지혜롭다 | 바느질, 업히다 |
| ② | 덧개, 업히다 | 바느질, 지혜롭다 |
| ③ | 지혜롭다, 업히다 | 덧개, 바느질 |
| ④ | 바느질, 지혜롭다 | 덧개, 업히다 |
| ⑤ | 바느질, 업히다 | 덧개, 지혜롭다 |

10. EBS <보기>의 ㉠에 해당하는 단어가 쓰인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합성어의 구성에서 명사와 명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합성 명사는 흔히 볼 수 있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나는 시금치가 들어간 김밥을 좋아한다.’라는 문장에서 ‘김밥’이 그러하다. 그런데 때로는 ㉠명사와 명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합성 부사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그녀의 거짓말을 어제오늘 겪은 것이 아니다.’에서 ‘어제오늘’이 그러하다.

- ① 그는 밤낮 놀 생각만 한다.
- ② 축축한 봄비 소리도 우리를 즐겁게 한다.
- ③ 그는 보기와는 다르게 노래를 곧잘 한다.
- ④ 심판은 규칙을 잘못 적용하였다.
- ⑤ 친구들이 한바탕 법석을 떨었다.

11. EBS <보기>의 (가)에 들어갈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어의 문장에 흔히 나타나는 단어 배열법에 따라 어근을 결합한 합성어를 통사적 합성어, 그렇지 않은 합성어를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명사와 명사가 결합한 ‘쌀밥’, 동사의 관형사형과 명사가 결합한 ‘굳은살’, 동사의 연결형과 동사의 어간이 결합한 ‘갈아입다’ 등은 국어 문장에서 흔히 나타나는 배열법으로서 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반면에 형용사의 어간과 명사가 결합한 ‘검버섯’, 동사의 어간과 동사의 어간이 결합한 ‘끓주리다’ 등은 국어의 문장 구성에는 없는 단어 배열법으로 비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다른 예를 들어 살펴보자면,

(가)

- ① ‘논밭’은 명사와 명사가 결합한 통사적 합성어의 예이다.
- ② ‘뉘뉘’는 동사의 어간과 명사가 결합한 비통사적 합성어의 예이다.
- ③ ‘젊은이’는 형용사의 관형사형과 명사가 결합한 통사적 합성어의 예이다.
- ④ ‘파고들다’는 동사의 연결형과 동사의 어간이 결합한 통사적 합성어의 예이다.
- ⑤ ‘들어가다’는 동사의 어간과 동사의 어간이 결합한 비통사적 합성어의 예이다.



형태소와 단어

12. EBS <보기>의 ㉠, ㉡에 들어갈 단어가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어근에 접미사가 결합하여 형성되는 파생어에서 접미사가 결합하기 전의 단어의 품사와 결합한 후의 단어의 품사는 동일할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다. 다음의 파생어들을 살펴보자.

걸음, 구경꾼, 먹이, 쌓이다, 가위질, 많이

위의 단어들 중 (㉠)은 접미사가 결합하기 전과 결합한 후의 단어의 품사가 바뀌지 않은 반면, (㉡)은 접미사가 결합하기 전과 결합한 후의 단어의 품사가 바뀌었다.

	㉠	㉡
①	구경꾼, 쌓이다, 가위질	걸음, 먹이, 많이
②	구경꾼, 쌓이다, 많이	걸음, 먹이, 가위질
③	걸음, 먹이, 많이	구경꾼, 쌓이다, 가위질
④	걸음, 쌓이다, 가위질	구경꾼, 먹이, 많이
⑤	구경꾼, 먹이, 가위질	걸음, 쌓이다, 많이

13. 다음은 접미사 ‘-이’에 대한 국어사전의 설명이다. 이를 활용하여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1 「접사」

「1」 ((몇몇 형용사, 동사 어간 뒤에 붙어))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 길이/먹이.

「2」 ((몇몇 명사와 동사 어간의 결합형 뒤에 붙어))‘사람’, ‘사물’, ‘일’의 뜻을 더하고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 재떨이/옷걸이.

-이2 「접사」

「1」 ((일부 형용사 어간 뒤에 붙어))부사를 만드는 접미사.

㉢ 많이/같이.

「2」 ((일부 1음절 명사의 반복 구성 뒤에 붙어))부사를 만드는 접미사.

㉣ 집집이/일일이/곳곳이.

- ① ‘그는 별이가 시원찮다.’의 ‘별이’는 ‘-이1’의 「1」의 용례에 추가할 수 있겠군.
- ② ‘때밀이’는 ‘-이1’의 「2」의 용례에 추가할 수 있겠군.
- ③ ‘건물의 높이를 재다.’에서 ‘높이’는 ‘-이2’의 「1」의 용례에 추가할 수 있겠군.
- ④ ‘날날이’는 ‘-이2’의 「2」의 용례에 추가할 수 있겠군.
- ⑤ ‘깊이’는 ‘-이1’의 「1」과 ‘-이2’의 「1」의 용례에 추가할 수 있겠군.



14. EBS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덧 -

「접사」

「1」 (일부 명사 앞에 붙어) ‘거듭된’ 또는 ‘겹쳐 신거나 입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 덧니 / 덧버선.

「2」 (일부 동사 앞에 붙어) ‘거듭’ 또는 ‘겹쳐’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 덧대다 / 덧붙이다.

뒤 -

「접사」

(일부 동사 앞에 붙어)

「1」 ‘몹시, 마구, 온통’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 뒤뚱다 / 뒤췌다.

「2」 ‘반대로’ 또는 ‘뒤집어’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 뒤바꾸다 / 뒤엎다.

군 -

「접사」

(일부 명사 앞에 붙어)

「1」 ‘쓸데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 군것 / 군살.

「2」 ‘가외로 더한’, ‘덧붙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 군사람 / 군식구.

- ① ‘덧- 「1」’에 해당하는 용례로 ‘덧신’을 추가할 수 있겠군.
- ② ‘뒤- 「2」’에 해당하는 용례로 ‘뒤엎기다’를 추가할 수 있겠군.
- ③ ‘군 - 「1」’에 해당하는 용례로 ‘군말’을 추가할 수 있겠군.
- ④ ‘덧-’은 ‘뒤-’, ‘군 -’과는 달리 어근을 둘 이상의 품사로부터 취할 수 있는 접사에 해당하는군.
- ⑤ ‘덧-’, ‘뒤-’, ‘군 -’에 제시된 모든 용례들은 접사가 결합하기 전과 결합한 후의 품사가 바뀌지 않았군.

15. <자료 1>과 <자료 2>를 근거로 할 때, ‘한’의 띄어쓰기가 알맞지 않은 것은?

<자료 1>

한글 맞춤법 규정에 따르면, 조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는 띄어써야 한다. 따라서 관형사는 다른 단어에 붙여 쓸 수 없다. 그러나 접사는 단어가 아니므로 단독으로 쓰이지 못하고 항상 다른 어근이나 단어에 붙여 써야 한다.

<자료 2>

■ 한(관형사)

㉠ ((일부 단위를 나타내는 말 앞에 쓰여)) 그 수량이 하나임을 나타내는 말.

㉡ ‘어떤’의 뜻을 나타내는 말.

㉢ ‘같은’의 뜻을 나타내는 말.

■ 한-(접사)

㉣ ‘큰’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 ‘정확한’ 또는 ‘한창인’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 ㉠ 그는 한달 월급을 모두 부모님 선물로 썼다.
- ㉡ 내 동생과 나는 매일 한 이불을 덮고 잔다.
- ㉢ 어머니는 자식이 잘못될까 한걱정을 하셨다.
- ㉣ 장군은 화살을 과녁 한가운데에 명중시켰다.
- ㉤ 옛날 강원도의 한 마을에 효자가 살고 있었다.



형태소와 단어

Step 2

16. 밑줄 친 말 가운데 <보기>의 [A]의 사례로 추가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합성어의 품사는 합성어를 구성하는 어근의 품사와 관계없이 새로운 품사가 되기도 하지만, [A]일차적으로 직접 구성 성분* 분석을 했을 때 맨 끝 구성 성분의 품사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 사례는 아래와 같다.

단어	직접 구성 성분 분석	단어의 품사
큰집	큰(형용사) + 집(명사)	명사
본받다	본(명사) + 받다(동사)	동사
⋮	⋮	⋮

* 직접 구성 성분 : 어떤 언어 단위를 층위를 두고 분석할 때 일차적으로 분석되어 나오는 성분.

- ① 입학했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3학년이구나.
- ② 그는 농구는 몰라도 축구 실력만큼은 날달랐다.
- ③ 아침에 늦잠이 들어 하마터면 지각할 뻔했다.
- ④ 길을 가는데 낯선 사람이 알은척을 했다.
- ⑤ 하루빨리 여름방학이 왔으면 좋겠다.

17. 다음은 어떤 학생이 의문을 해결하는 탐구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의문	‘꿈’은 사전에서 찾을 수 있는데, ‘비움’은 사전에서 찾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탐구	[탐구 절차] 1. ‘꿈’과 ‘비움’의 형태소 분석하기 ·꿈 → 꾸- + -ㅁ ·비움 → 비우- + -ㅁ 2. ‘꿈’과 ‘비움’이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보기 ·그는 놀라운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꿈을 꾸었습니다. ·행복은 마음을 철저히 <u>비움</u>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	_____ ㉠ _____으로 보아, ‘꿈’의 ‘-ㅁ’은 명사를 만드는 접사이고, ‘비움’의 ‘-ㅁ’은 명사형 어미이다. 즉 ‘꿈’은 명사로서 하나의 단어이므로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만, ‘비움’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의 활용형이므로 사전에 등재되지 않는 것이다.

- ① ‘비움’과 ‘꿈’이 모두 어간에 ‘-ㅁ’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것
- ② ‘꿈’이 동사 ‘꾸다’에서, ‘비움’이 동사 ‘비우다’에서 비롯된 것
- ③ ‘비움’과 달리 ‘꿈’이 형태적으로 유사한 ‘꾸다’와 호응하는 것
- ④ ‘꿈’이 목적어로 쓰이고, ‘비움’이 조사와 결합하여 부사어로 쓰인 것
- ⑤ ‘꿈’이 관형어의 수식을 받지만 ‘비움’과 달리 부사어의 수식을 받지 않는 것



형태소와 단어

18. <보기>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 ‘-답-’이 쓰인 예를 바르게 분류한 것은?

접미사 ‘-답-’은 다음 조건에 따라 ‘-답1-’, ‘-답2-’의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조건]
1. ‘-답1-’은 자음 뒤나 모음 뒤 모두에 결합하고, ‘-답2-’는 자음 뒤에서만 결합한다.
2. ‘-답1-’은 단어에도 결합하지만 ‘그는 [싸움에서 이긴 장군]답다.’에서 볼 수 있듯이 단어보다 큰 단위에도 결합할 수 있고, ‘-답2-’는 단어보다 큰 단위에는 결합하지 않는다.
3. ‘-답1-’은 ‘자격이나 특성 따위를 지니고 있다.’의 의미를 가지고, ‘-답2-’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의 의미를 가진다.
[예]
㉠ 정답다 ㉡ 신사답다 ㉢ 도서관답다
㉣ 참답다 ㉤ 아이답다

	-답 ¹ -	-답 ² -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 ㉣, ㉤	㉠, ㉢

19. <자료>를 활용한 수업에서 선생님의 지도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료>

※ 다음 글에서 합성어를 찾아 그 특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지금은 양옥집으로 바뀌었지만 어릴 적 우리 집은 아담한 초가집이었습니다. 집 옆에는 큰 소나무가 한 그루 있었고, 대문 안쪽에는 국화꽃이 가득 심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새벽이 밝아 오는 것을 기다려 책꽂이에서 낡은 책들을 하나씩 꺼내 읽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바쁘셨지만 어쩌다 짬이 나면 비빔냉면을 만들어 주곤 하셨습니다.

- ① 저는 ‘책꽂이’가 합성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책꽂이’는 ‘책’이라는 어근에 ‘꽂다’의 어간 ‘꽂-’과 장소를 나타내는 ‘이’가 붙어서 만들어진 어근 ‘꽂이’와 결합하였어요. → ‘책꽂이’의 ‘-이’가 장소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야. 이때의 ‘-이’는 일부 타동사 어간 뒤에 붙어, ‘그 일을 하는 도구’의 뜻을 나타내지.
- ② 저는 ‘소나무’를 찾았어요. ‘소나무’는 ‘솔나무’에서 왔잖아요. 그런데 왜 ‘ㄹ’이 떨어지죠?
→ 합성어가 될 때, ‘ㄹ’과 조음 위치가 같은 ‘ㄴ’, ‘ㄷ’ 등의 자음 앞에서 ‘ㄹ’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이런 예로는 ‘버드나무’, ‘화살’ 등이 더 있단다.
- ③ 저는 ‘밝아 오다’의 의미가 구성 요소인 ‘밝다’와 ‘오다’의 의미를 합친 것이니까 합성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합성어는 한 단어니까 ‘밝아오는’처럼 붙여야겠지요. → 구성 요소의 의미가 합쳐져서 합성어의 의미가 형성된 예는 얼마든지 더 있어. <자료>에 있는 ‘심어지다’가 그렇고 그 밖에 ‘떨어쓰다’, ‘막아내다’ 등도 있어.
- ④ 저는 ‘비빔냉면’이 합성어라고 생각합니다. ‘비냉’이라고 줄일 수도 있으니까요. → 줄일 수 있다고 반드시 합성어는 아니야. ‘남한과 북한’을 ‘남북한’으로 줄일 수 있지만 ‘남한과 북한’이 합성어는 아니잖아.
- ⑤ 저는 ‘초가집’이 합성어라고 생각합니다. ‘초가’에서 ‘가’가 ‘집’을 뜻하는 것 같은데, 또 ‘집’을 붙였네요. → ‘한자어+고유어’ 합성어에서 이런 현상이 많아. <자료>에도 이런 현상을 보이는 합성어인 ‘양옥집’, ‘국화꽃’이 더 있구나.



형태소와 단어

[20~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말에서 단어는 단일어와 복합어로 구분할 수 있다. 단일어는 하나의 실질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를 의미하는데, 용언의 경우 어간이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경우를 단일어로 파악한다. 복합어는 두 개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를 뜻한다. 복합어는 이를 구성하고 있는 둘 이상의 형태소의 성격에 따라 다시 파생어와 합성어로 구분된다.

파생어는 어근의 앞이나 뒤에 접사가 붙어 만들어진 단어이다. 파생어는 접사의 성격에 따라 ㉠ 어근의 원래 의미가 강조되는 경우와 어근에 새로운 의미가 더해지는 경우, ㉡ 접사와 결합한 단어의 품사가 바뀌는 경우로 각각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접사는 어근에 사동이나 피동의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합성어는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하여 형성되는 단어이다. 합성어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품사를 기준으로 합성어를 나누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합성어의 품사는 가장 뒤에 오는 어근의 품사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에는 합성 명사, 합성 동사, 합성 형용사, 합성 관형사, 합성 부사 등이 있다. 예컨대 ‘먹거리’의 ‘거리’는 의존 명사이므로 ‘먹거리’는 합성 명사에 속하고, ‘본받다’의 ‘받다’는 동사이므로 ‘본받다’는 합성 동사에 속한다.

둘째, 어근들의 의미적 통합 관계를 기준으로 합성어를 나누어 볼 수 있다. ‘오가다’와 같이 ㉢ 어근들이 대등한 의미 관계로 결합되는 합성어를 대등 합성어라고 한다. ‘시골집’은 ‘시골의집’, ‘굽어모으다’는 ‘굽어서 모으다’라는 뜻으로, 이처럼 ㉣ 앞의 어근이 뒤의 어근에 종속되어 수식하는 합성어를 종속 합성어라고 한다. 융합 합성어는 ㉤ 본래 어근의 뜻에서 떨어져 새로운 의미를 지니는 단어를 말하는데, ‘돌아가다’가 ‘돌다’와 ‘가다’와는 전혀 다른 의미인 ‘죽다’라는 새로운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어근들의 형식적 결합 방식을 기준으로 합성어를 나누어 볼 수 있다. 형식적 결합 방식을 기준으로 나눈다는 것은 우리말의 통사적 구성 방식을 따르고 있는지, 즉 어근과 어근의 배열 방식이 국어의 정상적인 단어 배열 방식을 따르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별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해당 합성어가 우리말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 방식에 따르고 있을 경우 통사적 합성어로, 우리말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 방식에 따르지 않고 있을 경우 비통사적 합성어로 분류할 수 있다.

20. 윗글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그녀는 음식을 나르다가 그릇을 깨뜨렸다.
 ㉡ [넷물이 넙치지 않게 독을 높이 쌓아야 한다.
- ② ㉢ [그는 슬픔에 젖어 말을 하지 못하였다.
 ㉣ [그녀는 가까스로 그와의 거리를 좁혔다.
- ③ ㉤ [그는 논밭을 팔아 자식을 교육하였다.
 ㉥ [창문을 여닫을 때마다 찬바람이 들어왔다.
- ④ ㉦ [작은 돌다리를 건너자 마을이 보였다.
 ㉧ [바람이 불더니 파도가 일어 배가 출렁거렸다.
- ⑤ ㉨ [그녀는 마치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었다.
 ㉩ [매섭던 그도 이제 종이호랑이가 다 되었다.

21. 윗글에 따라 다음의 자료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가) 녀름지시를 **힘쓰고** (농사짓기를 힘쓰고)
 (나) 미나리를 **딛먹는다** (미나리를 찍어 먹는다)
 (다) 六道에 **오르느리니** (육도에 오르내리니)
 (라) **거죽말**로 소기스 븃니 (거짓말로 속이니)
 (마) 흔뵈 부터썻 **낯아가고** (함께 부처께 나아가고)

- ① (가)의 ‘힘쓰고’와 현대 국어의 ‘본받다’는 모두, 합성 동사이면서 비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하겠군.
 ② (나)의 ‘딛먹는다’와 현대 국어의 ‘돌아가다’는 모두, 합성 형용사이면서 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하겠군.
 ③ (다)의 ‘오르느리니’와 현대 국어의 ‘오가다’는 모두, 합성 동사이면서 비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하겠군.
 ④ (라)의 ‘거죽말’과 현대 국어의 ‘먹거리’는 모두, 합성 명사이면서 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하겠군.
 ⑤ (마)의 ‘낯아가고’와 현대 국어의 ‘굶어모으다’는 모두, 합성 형용사이면서 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하겠군.

정답 및 해설

- 1) **답 ① [형태소의 개념, 특성 파악]** ‘첫눈’은 자립 형태소 ‘첫(관형사)’과 자립 형태소 ‘눈(명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답 ②** 용언의 어간은 실질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로, ‘내리-’, ‘가 -’가 이에 해당한다. **답 ③** 접사는 복수의 접미사 ‘- 들’과 ‘한창’이라는 뜻을 더해 주는 접두사 ‘한-’의 2개로 단독으로 쓰일 수 없다. **답 ④** 어미는 단독으로 쓰일 수 없는 의존 형태소이자 문법적인 의미가 강한 형식 형태소로 예문에서는 ‘-자’, ‘-았-’, ‘-다’ 3개이다. **답 ⑤** 조사는 주격 조사 ‘이’, 보조사 ‘은’, 부사격 조사 ‘에’, ‘으로’ 총 4개로 문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 2) **답 ② [형태소의 개념, 특성 파악]** ㉠의 의존 형태소 개수는 ‘에, 는, 이, 피-, -었-, -다’로 6개, ㉡의 의존 형태소는 ‘를, 보-, -러, 는, 에, 오-, -았-, -다’로 8개이다.

	㉠산에는 밤꽃이 가득 피었다.	㉡너를 보러 우리는 서울에 왔다.
형태소	산, 에, 는, 밤, 꽃, 이, 가득, 피-, -었-, -다	너, 를, 보-, -러, 우리, 는, 서울, 에, 오-, -았-, -다
자립 형태소	산, 밤, 꽃, 가득	너, 우리, 서울
의존 형태소	에, 는, 이, 피-, -었-, -다	를, 보-, -러, 는, 에, 오-, -았-, -다
실질 형태소	산, 밤, 꽃, 가득, 피-	너, 보-, 우리, 서울, 오-,
형식 형태소	에, 는, 이, -었-, -다	를, -러, 는, 에, -았-, -다

답 ① ㉠은 ‘산, 에, 는, 밤, 꽃, 이, 가득, 피-, -었-, -다’ 총 10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답 ②** ㉡의 형식 형태소는 ‘를, -러, 는, 에, -았-, -다’ 6개이다. **답 ③** ㉡의 자립 형태소는 ‘너, 우리, 서울’ 3개로 ㉠의 자립 형태소 ‘산, 밤, 꽃, 가득’보다 한 개 적다. **답 ④** ㉠의 실질 형태소는 ‘산, 밤, 꽃, 가득, 피-’ 5개, ㉡의 실질형태소는 ‘너, 보-, 우리, 서울, 오-’ 5개로 동일하다.

- 3) **답 ① [형태소의 이해]** 단일어 중 명사, 대명사, 수사, 용언(동사, 형용사)의 어간, 관형사, 부사, 감탄사는 실질 형태소이다. 반면에 조사와 어미는 문법 형태소이다. 용언(동사, 형용사)의 어간과 조사, 어미, 접사 등은 의존 형태소이다. ‘그’는 대명사(3인칭 대명사), ‘의’는 조사(관형격 조사), ‘얼굴’은 명사, ‘이’는 조사(주격 조사), ‘이내’는 부사, ‘밝-’은 형용사의 어간, ‘-은’은 어미(관형사형 어미), ‘빛’은 명사, ‘을’은 조사(목적격 조사), ‘따-’는 동사의 어간, ‘-았-’은 어미(선어말 어미), ‘-다’는 어미(종결 어미)이다.

- 4) **답 ② [어간과 어근의 구별]** ‘되찾다’는 파생어로, 형태소 단위로 분석을 하면 ‘되-(접두사) + 찾 -(어근) + -다(종결 어미)’이다. **답 ①** ‘깨우다’는 파생어로서 형태소로 분석하면 ‘깨 -(어근) + -우 -(사동 접사) + -다(종결 어미)’이다. 따라서 어근은 ‘깨 -’이고 어간은 ‘깨우 -’이다. **답 ③** ‘붙잡다’는 합성어로서 ‘붙다’의 어간 ‘붙 -’과 ‘잡다’의 어간 ‘잡 -’이 결합한 형태이다. 그러므로 어근은 ‘붙 -’, ‘잡 -’이고 어간은 ‘붙잡-’이다. **답 ④** ‘먹다’의 어간은 ‘먹-’이고 ‘먹이 다’는 파생어로서 형태소 분석을 하면 ‘먹 -(어근) + -이- (사동 접사) + -다(종결 어미)’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먹 -’을 어근으로 하고 있다. **답 ⑤** ‘끓이다’는 파생어로 ‘끓 -(어근) + -이-(사동 접사) + -다(종결 어미)’로 분석이 가능하다. 어간은 ‘끓이-’가 된다. ‘애끓다’는 ‘애(어근) + 끓 -(어근) + -다(종결 어미)’인 합성어로 어근은 ‘애’, ‘끓 -’이고 어간은 ‘애끓 -’이다.

- 5) **답 ⑤ [단어의 구조 파악]** ‘동생에게 물건을 들려 보냈다.’에서 ‘들려’는 ‘들다’의 사동사 ‘들리다’가 활용한 형태이다. ‘들리고, 들리며, 들리지, 들려서……’에서 알 수 있듯이 어간 ‘들리-’에 어미 ‘-어’가 결합하여 ‘들려’가 된 것이다. 그런데 ‘들리다’는 본래 동사 ‘들다’의 어근 ‘들-’에 사동 접사 ‘-리-’가 결합한 형태이다. 따라서 ‘들려’의 어간은 ‘들리-’이고, 어근은 ‘들-’이다. **답 ①** ‘웃다’의 어간과 ‘웃기다’의 어근은 ‘웃-’이다. **답 ②** ‘뛰어놀다’는 어근 ‘뛰-’와 ‘놀-’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답 ③** ‘남다르다’는 ‘남다르고, 남다르지, 남다르며……’로 활용하므로 어간은 ‘남다르-’이다. 의미상 중심이 되는 어근은 ‘남’, ‘다르-’이다. **답 ④** ‘먹보’, ‘울보’는 어근 ‘먹-’, ‘울-’에 접사 ‘-보’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먹다, 먹고, 먹지, 먹어……’, ‘울다, 울고, 울지, 울며……’ 등의 활용을 통해 ‘먹-’과 ‘울-’은 어근과 어간의 형태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 6) **답 ① [어미와 접사의 구별]** ‘-기1 ’의 용례인 ‘잠들기를 바랐다’에서 ‘잠들기도’, ‘잠들기만’과 같이 뒤에 보조사가 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기2 ’는 명사를 파생시키는 접사인테, 명사에는 어떤 종류의 조사든 모두 붙일 수 있기 때문에 보조사가 붙지 못한다는 말이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기2 ’의 용례인 ‘굶기 조절이 가능하다’에서 ‘굶기도’, ‘굶기만’과 같이 뒤에 보조사가 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답 ②** ‘-기1 ’의 용례인 ‘잠들기와 ‘달리기’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을 활용해 각각 ‘잠들었기’, ‘달리었기’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기2 ’는 선어말 어미 뒤에 붙을 수 없기 때문에 선어말 어미를 활용한 시제 표현이 불가능하다. **답 ③** ‘-기1 ’의 ‘달리기’는 제시된 용례의 주어 ‘그는’의 서술어로 기능하는 반면에 ‘-기2 ’의 ‘달리기’는 운동의 종류로서 ‘달리기’를 지칭하는 명사이므로 주어 ‘그녀는’의 서술어로 기능하지 않는다. **답 ④** ‘-기1 ’은 명사형 어미로 어간의 품사를 바꾸지는 않는다.

반면에 ‘-기2’는 명사 파생 접미사로서 원래 단어의 품사를 명사로 바꾸게 된다. ⑤ 명사형 어미인 ‘-기1’이 결합한 ‘달리기’는 용언 ‘달리다’의 명사형으로 사전에 실리지 못하는 반면에 명사 파생 접미사인 ‘-기2’가 결합한 ‘달리기’는 하나의 단어로 사전에 실린다.

7) **㉮ ⑤ [파생 접사와 어미의 구분]** ‘높이’의 ‘이’는 형용사를 명사로, 혹은 부사로 바꾸어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여 사전에 따로 등재되지만, ‘높고’의 ‘고’와 ‘높은’의 ‘은’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지는 못한다. 단지 활용형을 만들 뿐이다. **㉮ ①** ‘높이’의 파생 접미사 ‘-이’는 품사를 형용사에서 명사, 혹은 부사로 바꾸어 주지만, 어미는 품사를 새롭게 바꾸어 주지는 못한다. ② 어미들은 그 의미가 일정하지만 파생 접미사들은 결합되는 어근에 따라 그 의미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높게, 깊게, 짧게, 작게’에서 어미 ‘-게’는 그 의미가 모두 같지만, ‘털갈이, 재떨이, 구두닦이’의 파생 접미사 ‘-이’는 그 의미가 각각 다르다. ‘털갈이’의 ‘-이’는 ‘~하는 일’의 의미를 나타내고, ‘재떨이’의 ‘-이’는 ‘~하는 도구’를 나타내며, ‘구두닦이’의 ‘-이’는 ‘~하는 사람’을 나타낸다. ③ 파생 접미사와 결합된 말은 새로운 단어로써 사전에 등재되지만 어미와 결합된 말은 단지 활용형이기에 사전에 등재되지 않는다. ④ ‘높게, 깊게, 짧게, 작게’와 ‘높이, 깊이, *짧이, *작이’에서 나타나듯이 어미는 그 어간과의 결합이 자유로운 반면, 파생 접미사는 그 결합이 제약되어 특정한 낱말하고만 결합하는 경향이 있다.

8) **㉮ ② [접두사와 접미사의 이해]** ㉮의 접미사 ‘-이’는 형용사 ‘높다’의 ‘높-’에 결합하여 명사 ‘높이’를 파생하며, ㉮의 접미사 ‘-이-’는 형용사 ‘높다’의 ‘높-’에 결합하여 동사 ‘높이다’를 파생한다. 따라서 ㉮과 ㉮의 접미사 모두 단어의 품사를 바꾸어 준다. **㉮ ①** ㉮ ‘높이’는 명사이며, ㉮ ‘높이’는 부사이다. ③ ㉮의 ‘-다랗-’은 형용사 ‘높다’의 ‘높-’에 결합하여 ‘높다랗다’를 파생하는데 이 역시 형용사이다. 또한, ㉮의 ‘드-’는 형용사 ‘높다’의 ‘높-’ 앞에 결합하여 ‘드높다’를 파생하는데 이 역시 형용사이다. ④ ㉮ ‘드높이다’는 ‘(드- + 높-) + -이- + -다’로 분석되는데, 이때 ‘드-’는 접두사이며 ‘-이-’는 접미사이다. ⑤ ㉮ ‘드높이다’와 ㉮ ‘높이다’에 쓰인 ‘-이-’는 ‘드높다’, ‘높다’에 사동의 뜻을 더해 주는 사동 파생 접미사이다.

9) **㉮ ① [파생어의 문법적 변화 이해]** ‘덮개’는 동사 어간 ‘덮-’에 접미사 ‘-개’가 결합해 만들어진 말로, 동사 어간이 접미사를 만나 명사로 품사가 바뀌었다. ‘지혜롭다’는 명사 ‘지혜’에 접미사 ‘-롭다’가 결합해 형용사가 된 말이다. 즉 ‘덮개’와 ‘지혜롭다’는 접미사가 결합해 파생되면서 품사가 달라지는 문법적인 변화가 일어난 단어들이다. ‘바느질’은 명사 ‘바늘’과 접미사 ‘-질’이 결합한 말로, 품사는 변화 없이 명사이다. ‘업히다’는 동사 어간 ‘업-’과 접미사 ‘-히-’가 결합한 말로, 품사는 변화 없이 동사이다. 따라서 ‘바느질’과 ‘업히다’는 품사가 달라지는 문법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단어임을 알 수 있다.

10) **㉮ ① [합성어의 이해]** ‘밤낮’은 명사 ‘밤’과 명사 ‘낮’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주어진 문장에서 ‘밤낮’은 부사로서 기능하고 있다. **㉮ ②** ‘봄비’는 ‘봄(명사)’과 ‘비(명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합성 명사이다. ③ ‘곧잘’은 ‘곧(부사)’과 ‘잘(부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합성 부사이다. ④ ‘잘못’은 ‘잘(부사)’과 ‘못(부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합성 부사이다. ⑤ ‘한바탕’은 ‘한(관형사)’과 ‘바탕(명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합성 부사이다.

11) **㉮ ⑤ [합성어의 이해]** ‘들어가다’는 동사의 연결형 ‘들어’와 동사의 어간 ‘가-’가 결합한 합성어로서 이러한 결합 형태는 국어 문장의 구성 방식에 부합하므로 통사적 합성어에 속한다. **㉮ ①** 명사와 명사가 결합한 방식은 국어의 문장 구성 방식에서 흔히 나타나는 단어 배열법이고 조사가 생략되는 일이 많다. 그러므로 ‘논밭’은 통사적 합성어에 속한다. ② 동사의 어간과 명사가 결합한 방식으로 어간이 어미 없이 바로 명사에 연결되는 단어 배열법은 국어의 문장 구성에서 일반적이지 않다. 그러므로 ‘덮밥’은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③ 형용사의 관형사형과 명사가 결합한 방식은 국어의 문장 구성 방식에 부합하므로 ‘젊은이’는 통사적 합성어에 속한다. ④ ‘파고들다’는 동사의 연결형 ‘파고’와 동사의 어간 ‘들-’이 결합한 합성어로서 이러한 결합 형태는 국어 문장의 구성 방식에 부합하므로 통사적 합성어에 속한다.

12) **㉮ ① [파생어의 이해]** ‘구경꾼’은 명사이며 어근인 ‘구경’도 명사이다. ‘쌓이다’와 ‘쌓다’는 모두 동사이다. ‘가위질’은 명사이며 어근인 ‘가위’ 역시 명사이다. 반면에 ‘걸음’은 명사이지만 어근 ‘걸-’은 동사의 어간이다. ‘먹이’는 명사이지만 어근 ‘먹-’은 동사의 어간이다. ‘많이’는 부사이지만 어근 ‘많-’은 형용사의 어간이다. **㉮ ②** ‘많이’는 부사이지만 어근 ‘많-’은 형용사의 어간으로 ㉮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가위질’은 명사이고 어근인 ‘가위’ 역시 명사로 ㉮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③ ‘걸음’은 명사이지만 어근 ‘걸-’은 동사의 어간이다. ‘먹이’는 명사이지만 어근 ‘먹-’은 동사의 어간이다. 모든 단어가 ㉮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에서 ‘구경꾼’은 명사이고 어근인 ‘구경’도 명사이다. ‘쌓이다’와 ‘쌓다’는 모두 동사이다. ‘가위질’은 명사이고 어근인 ‘가위’ 역시 명사이다. 제시된 단어 모두가 ㉮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④ ‘걸음’은 명사이지만 어근 ‘걸-’은 동사의 어간으로 ㉮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구경꾼’은 명사이고 어근인 ‘구경’도 명사로 ㉮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⑤ ‘먹이’는 명사이지만 어근 ‘먹-’은 동사의 어간으로 ㉮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쌓이다’와 ‘쌓다’는 모두 동사로서 ㉮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13) **㉮ ③ [품사의 세부 유형 분류, 적용]** ‘건물의 높이를 재다’에서 ‘높이’는 명사이므로 부사의 용례가 아닌 ‘-이’의 「1」 용례에 해당한다. **㉮ ①** ‘그는 벌이가 시원찮다’의 ‘벌이’는 동사 ‘벌다’(일을 하여 돈 따위를 얻거나 모으다)의 어간 ‘벌-’에 ‘-이’가 결합하여 명사 ‘벌이’(일을 하여 돈이나 재물을 벌)가 되었으므로 ‘-이’의 「1」의 용례에

추가할 수 있다. ② ‘때밀이’는 명사인 ‘때’와 동사 ‘밀다’의 어간 ‘밀-’이 결합한 형태에 ‘-이¹’이 결합하여 ‘때를 밀어 주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몸에 있는 때를 밀어서 씻어 내는 일’의 의미로 쓰이므로 ‘-이¹’의 「2」의 용례에 추가할 수 있다. ④ 명사 ‘날’(셀 수 있는 물건의 하나하나)이 반복된 구성이므로 ‘날날이’를 ‘-이²’의 「2」의 용례에 추가할 수 있다. ⑤ ‘깊이’는 형용사 ‘깊다’의 어근에 ‘-이¹’의 「1」이 결합하여 명사 ‘깊이’가 되고, 또한 ‘-이²’의 「1」이 결합하여 부사 ‘깊이’가 되므로 각각의 용례에 추가할 수 있다.

14) ㉡ ② [접사의 이해] ‘뒤엎키다’는 ‘마구 엎키다.’라는 뜻으로 이때 접두사는 ‘뒤- 「1」’에 해당한다. ㉢ ① ‘덧신’은 ‘덧신은 신’이라는 뜻으로 ‘덧- 「1」’에 해당하는 용례이다. ③ ‘군말’은 ‘쓸데없는 말’의 의미를 지니므로 ‘군- 「1」’에 해당하는 용례이다. ④ ‘덧-’은 명사와 동사를 어근으로 취하고, ‘뒤-’는 동사를 어근으로 취하고 있으며, ‘군-’은 명사를 어근으로 취하고 있다. ⑤ 접두사가 붙어 생긴 접두 파생어의 경우 접두사가 결합하기 전과 그 품사가 동일하다. <보기>에 제시된 용례들도 모두 접사 결합 전과 접사 결합 후의 품사가 바뀌지 않은 파생어들이다.

15) ㉡ ① [띄어쓰기의 적절성 판단] ①의 ‘한’은 관형사로, ㉠의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관형사는 다른 단어에 붙여 쓸 수 없으므로 뒤에 오는 명사 ‘달’과 띄어 써야 한다. 따라서 ‘한 달’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 ② ‘한이불’의 ‘한’은 관형사 ㉢에 해당하므로 띄어쓰는 것이 적절하다. ③ ‘한걱정’의 ‘한’은 접사 ㉠에 해당하므로 붙여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④ ‘한가운데’의 ‘한’은 접사 ㉢에 해당하므로 붙여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⑤ ‘한 마을’의 ‘한’은 관형사 ㉢에 해당하므로 띄어 쓰는 것이 적절하다.

16) ㉡ ① [합성어의 품사] <보기>의 설명에 따르면, [A]는 합성어를 일차적으로 직접 구성 성분 분석을 했을 때 나오는 구성 성분 중 맨 끝의 구성 성분, 즉 가장 나중 어근의 품사에 따라 합성어의 품사가 결정되는 경우이다. 예컨대, <보기>에서 예로 든 ‘큰집’을 직접 구성 성분 분석하면, ‘큰’과 ‘집’으로 분석되는데, 이 가운데 뒤쪽 어근인 ‘집’의 품사가 명사이므로, ‘큰집’의 품사 역시 명사가 된다. 그런데 ④의 ‘어느새’는 ‘어느(관형사)’와 ‘새(명사)’가 결합되어 새로운 품사인 부사가 된 말이므로, [A]의 사례로 볼 수 없다. ㉢ ② ‘남달랐다’는 형용사로, ‘남(명사)’과 ‘다르다(형용사)’ 중 나중 어근인 ‘다르다’의 품사를 따른 것이다. ③ ‘늦잠’은 명사로, ‘늦-(형용사 어간)’과 ‘잠(명사)’ 중 나중 어근인 ‘잠’의 품사를 따른 것이다. ④ ‘늦선’은 ‘늦설다’의 관형사형으로 품사는 형용사이다. 이는 ‘늦(명사)’과 ‘설다(형용사)’ 중 나중 어근인 ‘설다’의 품사를 따른 것이다. ⑤ ‘하루빨리’는 부사로, ‘하루(명사)’와 ‘빨리(부사)’ 중 나중 어근의 품사를 따른 것이다.

17) ㉡ ⑤ [단어의 구조 파악] ‘꿈’은 ‘꾸-’에 명사 파생 접사 ‘-ㅁ’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명사이고, ‘비움’은 ‘비우다’라는 동사의 활용형으로, 동사의 어간에 명사형 전성 어미가 결합한 형태이다. ‘탐구’에서 ‘꿈’은 관형어 ‘놀라운’의 수식을 받지만 부사어 ‘놀랍게도’의 수식은 받지 않았다. 반면, ‘비움’은 부사어 ‘철저히’의 수식을 받았다. 따라서 ‘비움’은 용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관형어는 체언을 수식하고 부사어는 용언을 수식한다. 따라서 ‘비움’과 달리 ‘꿈’은 부사어의 수식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해 ‘꿈’이 체언임을 확인할 수 있다. ㉢ ① ‘꿈’의 경우 ‘-ㅁ’이 파생 접사이고, ‘비움’의 경우 ‘-ㅁ’이 명사형 전성 어미이다. 파생 접사 ‘-ㅁ’과 명사형 전성어미 ‘-ㅁ’의 형태가 같기 때문에, 어간에 ‘-ㅁ’이 결합했다는 점만으로 ‘꿈’과 ‘비움’의 차이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② ‘꿈’은 ‘꾸다’와, ‘비움’은 ‘비우다’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이것을 근거로 결론의 내용을 도출할 수 없다. ③ ‘꿈’이 ‘꾸다’와 호응하는 것은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과 관련이 없다. ④ ‘비움’이 조사와 결합하여 부사어로 쓰였다는 점을 근거로 ‘비움’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의 활용형이라고 결론지을 수는 없다. 명사도 조사와 결합하여 부사어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18) ㉡ ④ [접사의 이해] [조건] 1.에서 <‘-답1-’은 자음 뒤나 모음 뒤 모두에 결합하고, ‘-답2-’는 자음 뒤에서만 결합한다.>라고 했으므로 모음과 결합하는 ㉢, ㉣이 -답1-이 된다. [조건] 3.에서 <‘-답1-’은 ‘자격이나 특성 따위를 지니고 있다.’의 의미를 가지고, ‘-답2-’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라고 했으므로 ㉢ 도서관답다는 자격이나 특성을 의미하므로 -답2-의 의미를 가지고, ㉠ 정답다, ㉡ 참답다는 성질을 의미하므로 -답1-에 해당한다.

19) ㉡ ③ ‘밝아 오다’의 구성 요소인 ‘밝다’와 ‘오다’는 합성어가 아니라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구성이다. 이때 ‘오다’는 진행의 의미를 갖는 보조동사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심어지다’의 경우에는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구성으로 합성어가 아니지만, ‘-어지다’의 특성상 언제나 붙여 쓰는 것이 특이하다. ‘피어쓰다’는 합성어가 아니라 ‘피다’와 ‘쓰다’의 의미를 가진 동사구이므로 ‘피어 쓰다’로 써야 한다. ‘막아내다’의 경우는 본용언 보조용언의 구성으로 ‘막아 내다’로 띄어 써야 하나 붙여 씀도 허용한다. ㉢ ① ‘책꽂이’는 ‘재떨이’와 유사한데 ‘재떨이’ 역시 파생접미사로 쓰이고 있는 ‘-이’는 장소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는)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낸다. ② 파생어나 합성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자음 ‘ㄴ, ㄷ, ㅂ, ㅈ’ 앞에서 ‘ㄹ’이 탈락하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ㄹ’ 탈락의 환경 중 ‘ㅈ’을 제외하면 모두 ‘ㄹ’과 같은 조음 위치에서 발음되는 자음이라는 공통점을 가지며 ‘ㅈ’까지 포함해서 그 조건을 생각해 보면 허끝을 입천장 쪽으로 들어 올리면서 발음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소나무, 버드나무, 화살’ 모두 합성어를 만들 때 ‘ㄹ’ 탈락이 일어나는 경우이다. ⑤ ‘양옥집’의 ‘옥(屋)’자는 ‘집’을 뜻하는데 여기에 다시 고유어 ‘집’을 붙였으며, ‘국화꽃’의 ‘화(花)’자도 ‘꽃’을 뜻하는데 여기에 다시 고유어 ‘꽃’을 붙였다.

20) ㉡ ④ [파생어와 합성어의 이해] ‘돌다리’는 종속 합성어에 해당하지만, ‘출렁거리다’는 어근 ‘출렁’에 ‘그런 상태

가 잇따라 계속됨'의 접미사'-거리다'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오] ② 형용사 '좁다'가 사동 접사 '-히-'와 결합해 동사로 품사를 바꾸었다.

- 21) [답] ③ [파생어와 합성어의 이해] '오르'는 '오르'의 어간+용언의 형태로, 합성 동사이면서 비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오] ④ '먹거리'는 '먹'의 어간+의존 명사의 형태로, 어미가 빠져 있으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